**16. 분재의 형태**

가지와 줄기가 만들어내는 [수목](https://kotobank.jp/word/%E6%A8%B9%E6%9C%A8-78284)의 전체적인 [외형](https://kotobank.jp/word/%E5%A4%96%E5%BD%A2-457111), 외관을 ‘수형’이라 하며, 오랜 세월에 걸쳐 분재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수형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수형들은 엄밀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형태를 바탕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를 통해 분재 장인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발상으로 분재를 마주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형을 무리하게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간과 모양목

이 수형들은 둘 다 위로 뻗는 타입입니다. 전형적인 분재 형태로 소나뭇과 나무로 만든 분재에서 많이 쓰입니다. 직간은 곧게 위로 뻗은 줄기를 형성시켜갑니다. 직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정면에서 보면 거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전체 균형, 좌우 대칭, 통일감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반면 모양목에서는 줄기를 S자 모양으로 위로 뻗게 하고, 수관을 향해 가늘어지도록 만들어 갑니다. 줄기가 무늬를 그리듯 휘어져 분재 전체에 생동감을 주고, 식물의 생기 넘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취류와 현애

이 두 가지 수형은 자연의 과혹한 일면을 받아들이는 나무를 표현한 것입니다. 취류 분재의 구부러지는 듯한 줄기는 강풍을 견뎌내는 나무를 떠올리게 합니다. 현애 분재도 마찬가지로 깎아지른 절벽에 늘어뜨려진 긴장감이 있는 나무를 본뜬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수형의 분재에 흔히 사용되는 나무로는 오엽송을 들 수 있습니다.

뿌리이음과 모아심기

뿌리이음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여러 줄기가 밑동에서 연결된 수형으로 각각의 줄기가 서로 얽혀있는 형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뿌리이음 수형으로 키울 수 있는 나무는 한정적이며, 그중 하나로 두송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모아심기는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여러 나무를 서로 모아 심는 기법으로 숲의 풍경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